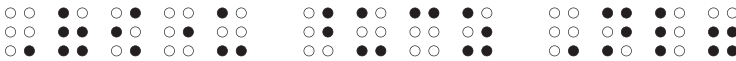


# 소리로 보는 세상



2015 November  
vol. 18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 02 목차 / 점자로 말해요 - 낙엽
- 03 시선집중 - 장애등급제 변화와 시각장애인 권리보장 /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 04 테마기획 -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 06 인터뷰 - 칠전팔기 도전으로 당당히 합격! 양천구청 공무원 윤은지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 08 포커스 -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맹인독경 공개 시연!
- 09 함께 사는 이야기 - 곁에 서기 / 최승호(시각1급\_인천광역시 부평구)
- 10 지역별 이모저모 - 광주지부, 김용택 작가와 함께 독서 문학기행 떠나  
월드리포트 - 스웨덴 아티스트 니나 린데, '성(性)에 대한 점자책' 제작
- 11 뉴스앨범 - 제36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 경남 창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 제6회 전국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 서울에서 열려
- 12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점자로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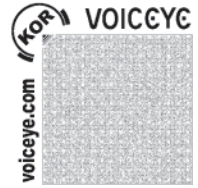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오색으로 물들었던 낙엽들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낙엽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① ② ③ ④ ⑤ ⑥

점자 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ㅝ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씨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는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출입표(···)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히]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ㅍ, ㅈ]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I 장애등급제 변화와 시각장애인 권리보장

##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최근 장애계의 최대 이슈라 하면 바로 장애인등급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장애인 등급과 관련하여 등급제의 유지나 폐지나 하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활동보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중·경증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에 반해 활동보조 서비스는 별도의 평가를 통하여 최 중증에만 제공되면서 이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 층에서 논의가 확산되었고, 또한 장애가 성적이거나 서열 등을 나열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으로 1급 2급 이런 식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모두 장애인등급제의 폐지 및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이다. 특히 현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공약의 첫 번째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내세웠고 대통령 당선 이후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급제 관련 태스크포스(특별 임무를 위해 임시 편성된 부서)를 구성하여 등급제 폐지 및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 장애인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여 제공하느냐에 문제는 뒷전인 채 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표 등의 연구만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 속에 실제 당사자인 장애인은 대부분 배제됨으로써 실제로 장애인이 추구하는 등급제 개편 방향과는 전혀 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2017년을 목표로 장애인 등급제의 전면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장애인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 2014년 여러 차례의 관련 공청회 등이 저지되면서, 장애인 등급제의 전면 폐지 및 개선에서 후퇴하여 현재의 1~6급 체계를 단순화하여 중·경증으로만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국민연금공단 주관으로 6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에 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하여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주요한 특징은 과거 장애인 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오로지 의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등급을 주었던 것에 반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조사표'를 세팅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 관련 기본조사부터 장애인복지서비스 조사, 활동지원서비스 욕구, 장애특성 조사, 활동지원 부가서비스,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등 장애와 관련한 욕구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 사업은 앞으로 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쳐야하는 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조사표가 적합한지 혹은 조사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급제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 대중의 관심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 현행 장애인등급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제공받고 있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서비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각장애인의 특성은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우리 시각장애인의 면밀한 감시와 활발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그 동안 활동 보조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시각장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장애 등급제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번 시범 사업을 보면 6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조사 및 심사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을 인력풀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려 하더라도 관심이 없거나 참여 의사가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범 사업 및 등급제 변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실시 등 대표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많은 시각장애인의 관심과 참여가 더불어 이루어질 때 더 나은 복지서비스, 더 나은 우리의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6개의 점으로 표현하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  
점자는 송암 박두성 선생에 의해 1926년 11월 4일 반포되었는데요.  
2015년 11월 4일, 한글 점자가 89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글자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며 읽을 수 있는 점자를 사용합니다. 6개의 점으로 한글을 표현하는 점자는 1926년 11월 4일 제생원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이하 송암)에 의해 반포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 한글 점자가 없어 일본어 점자를 사용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송암은 1920년 이종덕, 전태환 등 8명의 제자들과 비밀리에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육화사)'를 조직하여 한글점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수의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 사용하는 점자, '훈맹정음'입니다.



해방 이후 '훈맹정음'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기호의 점자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에는 당시 국립맹아학교의 이종덕, 전태환 두 교사와 재학생들의 한글 점자 맞춤법 수정이 이루어졌고, 1959년에는 '점자 악보기록법'이라는 번역물이 발간되어 최초로 악보를 점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점자연구활동은 1967년 7월 전국 맹학교 대표들이 모여 '한글점자연구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면서 점자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6개의 점이 모여 한 칸을 이루는 점자(세로축3, 가로축2)는 각 점에 1~6까지의 번호를 붙여 사용합니다. 6개 점의 조합을 통해 총 64개의 점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조합들에 한글 자음, 모음 등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한글점자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점자규정에서는 풀어쓰기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한글, 수학, 과학, 음악, 컴퓨터 점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글점자를 기념하기 위한 11월 4일 '점자의 날'이 되면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점자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며 시각장애인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89주년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이해 이룸센터에서는 기념식과 점자알리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89주년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는 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록 의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한국시각장애인 도서관협의회 육근해 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후 점자 유공자 포상 및 점자 공헌자 소개 영상,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약 2 시간에 걸쳐 이룸센터 앞 야외에서 점자알리기 행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점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비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칠전팔기 도전으로 당당히 합격! 양천구청 공무원 윤은지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칠전팔기의 도전 정신으로 공무원 합격의 문을  
연 청년이 있습니다.  
양천구청 출산보육과 공공보육팀의  
윤은지 주무관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포기를 모르는 윤은지 주무관의  
생생한 합격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 공무원 임용은 언제 되셨는지요?

지난 2015년 7월 2일에 임용되어 지금 4개월 차에 접어든 새내기 공무원입니다.

### 그렇군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셨던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저시력으로 태어났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연히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했어요. 제가 지금 28살인데 24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4년을 공부한 셈이네요. 공무원 시험을 많이 봤는데 계속 떨어졌었어요. 공무원 수험공부의 양은 방대한데 독서확대기를 통해 진도를 나가다보니 비장애인 수험생들에 비해 속도가 처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참고 이겨내니 이런 날이 왔네요.



### 공무원 시험 준비는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책을 보며 공부하는 편이다보니 인터넷 강의를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수험서를 보며 독학을 했어요. 처음 공무원 준비를 시작할 때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공직대비진출반의 도움을 빌리기도 했어요.

### 현재 양천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저는 출산보육과 공공보육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이 들어온 보육료나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확인하고 지원을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참가자가 3년이나 5년 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용으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2분의 1이나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사업도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하는 일이 보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일도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일의 대부분이 직접 출장을 나가 눈으로 보고 점검하는 것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업무 중 특이 케이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를 가진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여러 건의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선배들에게 물어봐 가며 처리하고 있어요.

### 시각장애인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지요. 업무를 배우는 데 있어 비장애인보다 조금

늦긴 하지만 못할 건 없거든요. 사실 시각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면 전문성 있는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단순 행정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면 장애인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무관님처럼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자신의 업무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니까요. 또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시각장애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자신을 믿고 공부하다보면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오더라고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많은 시각장애인 청년들 모두가 꼭 합격의 승전보를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맹인독경 공개 시연!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신앙인 ‘서울맹인독경’ 음반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이사장 강태봉)의 주최로 ‘서울맹인독경 음반발표회 및 점자모범연화경 출간기념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본 음악회는 음반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15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대표 이사인 해성스님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부 개회식에서는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강태봉 이사장의 인사말과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이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인희 전 겸임 교수의 축사, 한국시각장애인노인복지회 박노달 전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2부 축하 음악회는 KBS텔레트이자 여인극단 대표인 김경애 씨의 민요와 하모니카-기타 협연, 피아노-색소폰 협연 등 다양한 음악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본 음악회를 주최한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강태봉 이사장은 서울맹인독경 음반제작은 서울맹인독경이 서울시 무형 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큰 의미가 있으며, 추후 지방의 맹인독경 음반 출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제작된 서울맹인독경 음반은 시각장애 유관기관 및 신청자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곁에 서기

| 최승호(시각1급\_인천광역시 부평구)

친구들과 함께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나선 길, 왈카하게 콧가로 달려드는 아우성 속에서 나는 망연히 부러진 흰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다. 아마 분주하게 오가는 발걸음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은 나의 막대기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부러졌을 것이지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집에 어떻게 가야 할까?'보다 사실 내 마음을 더욱 짓눌렀던 것은 고작 막대기 하나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마치 절정을 마주하지 못하고 한 걸음쯤 빗겨 선 비겁자의 모습처럼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어쨌든 상황을 전달해야겠기에 마음을 다잡고 친구에게로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이야기하자 친구가 꺼내놓은 첫 마디는 "괜찮아?"였다. 대답을 하는 등 마는 등 전화를 끊고는 걱정 가득하던 친구의 목소리를 되뇌었다. 그리고 만약 나왔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를 상상해 보았다.

문득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닌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기계적인 수용과 반응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못한 말을 들어주고 곱씹어 더 아파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비슷하게나마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위로를 찾아 헤매고 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내 이야기를 숨죽이고 들어줄 사람. 이처럼 우리가 위로를 찾아 헤매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로부터 결핍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담사'나 '힐링', '멘토'를 찾아 모두들 달음박질같이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손에는 대가로 지불할 '돈'이 들려있다.

어디선가 남자와 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다. 특히 하소연을 할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남자는 대부분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여자는 공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결론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성별을 제하고 보면 꽤나 의미 있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요즘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들 안달이 난 것 같다. 심지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논의에 대해서는 경멸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시간낭비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러할까?

내 친구는 수많은 말들 대신 "괜찮아?"라고 물었고 나는 "응. 괜찮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라고 답했다. 우리의 대화에서 해결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울컥할 만큼 그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조용히 스러져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삶의 곁에 서고 싶어졌다.

그 어떠한 위로나 해결책보다 따뜻하게 곁에 서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오는 파도를 함께 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들의 곁에 서는 것이 힘든 일임을 알면서도 함께 서는 것, 손잡아 주는 것, 그저 괜찮은지 물어봐 주는 것, 매번 흔들릴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같이 살고 싶다.

방송인 김제동의 강연 중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다.

"모두가 서로의 양손을 잡으면 내가 한 손만 들 수 있는 힘 밖에 없다고 해도 옆 사람이 내 힘없는 손을 들어줍니다. 나는 왼손만 들었을 뿐인데 내 오른손도 옆 사람의 왼손과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같이 웃자, 함께 가자라는 말이 어색한 이 슬픈 시대를 위하여 목 놓아 울고 싶다.



## 광주지부, 김용택 작가와 함께 독서 문학기행 떠나

지난 10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 연합회(회장 김갑주, 이하 광주지부)는 시각장애인의 독서 흥미 유발과 독서층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김용택 시인과 함께 혼불의 근원을 찾다'라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60명의 참가자 중 시각장애인은 32명으로 김용택 작가의 생가인 진메마을 탐방, 혼불문학관 관람, 김용택 작가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지부는 차량 이동 중 점자와 목자로 시 쓰기를 진행해 김용택 작가의 즉석 심사로 시상식과 낭독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시각장애인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스웨덴 아티스트 니나 린데, '성(性)에 대한 점자책' 제작

스웨덴의 아티스트 니나 린데가 점자로 된 성(性) 관련 책자를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니나 린데가 '성에 대한 점자책'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칠레 유학생 시절, 길을 건너던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며 나누었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나 린데는 당시 도움을 주었던 시각장애인이 "북유럽 국가는 성에 대해 자유로운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성에 대한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니나 린데는 스웨덴 스톡홀름 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인용 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직접 제작에 나섰으며, 2010년 제작된 책자를 최근 스웨덴 국립 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스웨덴 시각장애인협회회장 호칸 톰슨은 현지 신문에 "이 책이 북유럽 국가의 시각장애인 문제에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보통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성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전했습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 제36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 경남 창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15일, 흰지팡이 날을 맞이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상남도지부가 주관하는 제36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이 창원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약 3,000명의 관객이 참석하였는데요. 군악대 퍼레이드 등 식전공연과 함께 기념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1부 기념식에서는 흰지팡이 현장 나눔, 장학금 전달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유공자 표창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2부 화합의 한마당 시간에는 노래자랑 및 팔씨름, 각종 체험행사, 행운권 추첨과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제36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라는 흰지팡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각장애인의 화합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제6회 전국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 서울에서 열려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6회 전국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와 한국시각장애여성연합회(상임대표 이낙영)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요. 이번 연수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여성이사 및 여성대의원, 각 지부·지회 시각장애여성 임원 등 전국 시각장애여성지도자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베트남, 중국, 몽골 등 해외의 시각장애여성지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제6회 전국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는 시각장애여성지도자들이 시각장애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국내 시각장애여성의 비전을 위해 서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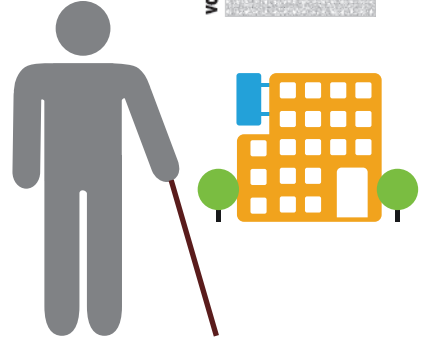


#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규모와 판매상품(객실정보 및 환경과 가격정보),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체크인시 서류작성(대독 및 대필)을 도와주시고, 지정객실의 안내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내부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식당 내부에서는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정보를 말로 전달해 주시고, 시각장애인이 원할 때 동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특히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거절하지 마시고 이용 가능 여부를 충분히 서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지로번호** 7608162
-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 우리은행 428-04-103943
  - 하나은행 757-810001-08405
  -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 보는 세상 2015년 11월 184호

발행일 2015년 11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서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